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

퇴직연금

- 동향 : 노후소득 보장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명시
- 이슈 : 고령화 시대의 가족 이야기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5월말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수출입 동반 부진으로 불황형 흑자 지속

-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수출 증가는 3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수출입 동반 부진: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선박 수출 부진 등으로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한 446.2억 달러, 수입도 5.5% 감소한 418.8억 달러를 기록
 - 불황형 흑자 기록: 7월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흑자이나 이는 경기불황기에 수출감소폭보다 수입감소폭이 더 커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임
- 하반기 수출은 주요국 경제 여건과 수출 기업들의 체감경기 등을 고려할때 3분기 이후에도 급격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동향: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금융시장은 소폭 상승

-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7월 20일 2.88%에서 8월 6일 현재 2.77%로 하락
 - 원/달러 환율도 7월 20일 1,140.5원에서 8월 3일 현재 1,133.5원으로 7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주요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7월 20일 1,822.9에서 8월 3일 1,848.7로 25.8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20일	8월3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3.6	4.2	3.4	3.4	3.4	2.8	2.4	-	-
	산업생산(%)	7.0	10.6	7.2	5.3	5.3	4.2	1.5	1.6	-
	소비자물가(%)	4.0	4.5	4.2	4.8	4.2	3.0	2.4	2.2	1.5
	실업률(%)	3.4	4.2	3.4	3.1	3.0	3.8	3.3	3.2	-
	경상수지(억달러)	276.5	26.1	54.9	69.0	126.7	25.6	111.4	58.4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2	3.80	3.68	3.60	3.41	3.45	3.39	2.88	2.77
	원/달러(원)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31.3	1,152.1	1,140.5	1,133.5
	코스피지수(P)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2014.0	1,854.0	1,822.9	1,848.7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2/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7월 20일은 6월, 8월3일은 7월 수치임.

□ **경제 이슈: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
 -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

○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3.8%까지 하락하고, 재정위기의 지속과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우려에 따라, 국민들이 바라는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봄

○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 성장과 일자리 창출**

- 이와 같은 저성장시대의 진입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대선후보들에게 '복지'보다 '성장', '경제민주화'보다 '일자리 창출'을 더 요구하고 있음
 - 대선 후보들이 '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뒀야 하나? 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44.3%), '선성장, 후복지'(41.9%), '선복지, 후성장'(13.7%)의 순으로 응답하여, '성장'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에 중점'을 뒀야 하나? 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물가 안정'(36.0%), '일자리 창출'(32.3%)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경제민주화'(12.8%)와 '복지 확대'(6.7%)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국민들은 '4% 이상의 높은 성장'을 원하고 있으며,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게 나타남
 - '우리 경제의 적정성장률'에 대해 국민들은 '최소 4% 이상의 성장'(48.1%), '3% 대의 성장'(40.2%), '5% 이상의 고성장'(11.6%)의 순으로 응답하여, '4% 이상의 높은 성장'을 59.7%가 지지함
 - 미래 유망산업에 대해 '바이오, 나노 등 신생제조업'(40.0%), '車, 전자 등 전통제조업'(26.1%), '문화, 관광 등 전통서비스업'(19.6%), '의료, 법률 등 지식서비스업'(14.3%)의 순으로 응답. '제조업'(66.1%)이 서비스업(33.9%)을 압도함
-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선거용'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복지를 위한 '증세'에도 호의적이지 않음
 - 대선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 '선거용'(78.1%)이라는 응답이 '꼭 필요한 공약'(21.9%)이라는 응답보다 약4배가량 높게 나타남
 - 복지 재원의 마련에 대해 '탈세 예방'(49.4%), '부자 증세'(31.1%), '다른 예산 절감'(10.7%), '복지세 신설'(8.8%)의 순으로 응답하여,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39.9%)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시사점**

-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차기 정부에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대책이 시급하며, 단기적으로는 청년, 여성,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함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 동향: 노후소득 보장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명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요약)

-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 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 7월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26일(목)부터 시행될 예정

퇴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

-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

-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7월26일(목)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관례적으로 해오던 중간정산 사례 >

- ▲ 연봉제 하에서 매년 중간정산 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 약정
-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결정하고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 * 기존 퇴직충당금을 중간정산 목적으로 활용금지(단, 퇴직연금에 계속근로기간 소급 적용시 활용 가능)
-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정산 등

-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

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됨

* 단, 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15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

**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 가능

· 이는 **찾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부금을 납입**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6.2년(2010, 고용노동부)

□ 이슈 : 고령화 시대의 가족이야기

“끝까지 살아남은 생물은 강한 것도, 영리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변화에 적응한 것이다”
찰스 다윈, <종의 기원>에서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후에 그것을 줄 수는 없다. 그것을 완성할 때쯤이면 그들은 새로운 것을 원할 것이다”. Steven P. Jobs

가족이 중요하다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왜 중요하고, 현재 우리나라 가족의 모습은 어떠하며 이렇게 중요한 가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가족은 역사 이래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어 사람들은 부모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가족의 모습과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금과 저축 등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길어진 생애기간 동안 가족관계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가족의 변화내용을 이해하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을 알아보고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가족의 특징은 구조적으로는 출산율 감소로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가족의 구조는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결혼한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관계적인 면에서는 남녀의 성역할이 평등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애 전 과정이 길어지면서 가족관계에서의 기대와 요구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부모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기간은 짧아지고, 결혼 후 자녀들도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혼인연령은 늦어지지만 기대여명이 증가하면서 결혼기간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길어지고 있어 자녀 출가 후에도 약 40 년 이상을 부부가 함께 생활해야 한다. 게다가 직업시장의 불안정으로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면서 부부들 만의 시간은 길어져 부부가족은 미래에 가장 보편적 가족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도 축소되면서 부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이지만, 젊은 시절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부부들은 은퇴 후나, 혹은 자녀들의 출가 후 둘 만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20 년 이상 부부들의 이혼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부부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기 위해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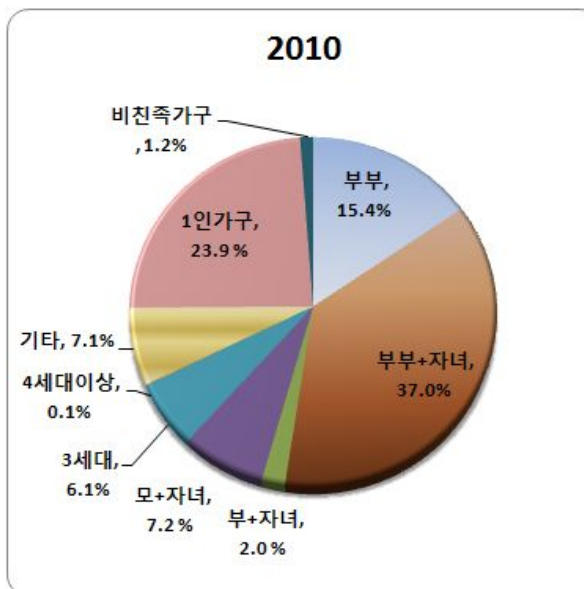
건강가족은 가족원들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감사와 애정을 서로에게 표현하는 가족으로 이런 가족은 위기에 뚝뚝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건강가족을 공부하자. 미래에 대한 투자로 주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부부교육에 참여해 보고, 자녀들에게도 혼수로 의사소통훈련교실 참여를 의무화 해 보자.

I. 고령화 시대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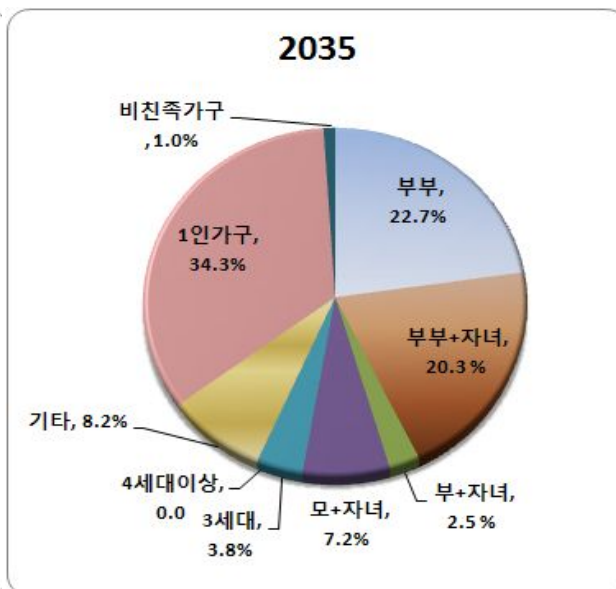
○ 저출산, 고령화 시대 가족의 중요성

- 2005 년 World Value Survey 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자의 91.3%와 여자의 92.8%가 삶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함
- 그러나 가족이 왜 중요하고 그 중요한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음
- 높은 이혼율, 결혼의 기피, 저출산 등으로 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학자들은 "미래의 결혼은 사회의 다른 제도만큼이나 확실하게 존재할 것" 이며 개인주의가 특징인 정보화 사회에서 정서적, 경제적 공동체인 가족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함
- 그 이유는 인간은 친밀감(intimacy)과 상호관계(mutuality)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파트너를 찾고 결혼서약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
-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 실제로 아버지가 돈을 벌고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를 키우던 전통적인 가족유형에서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기러기가족, 무자녀가족 등으로 가족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어 2010년에는 <그림 1>과 같이 한부모가족이 9.2%, 1인가구가 23.9%에 이룸. 2035년에는 부부가족의 비율이 22.7%, 기타가구도 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1】가구유형별 가구(2010)



【그림 2】가구유형별 가구(2035)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 2010년~2035년, p.10

**기타: 부부+미혼형제자매(기타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1세대기타, 부부+양친(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조부모(한조부모)+미혼손자녀, 2세대기타

○ 가족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

- 2011 년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9 세이며, 65.9%가 25-35 세 사이에 결혼을 하며,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1 세로 70.4%가 25-35 세에 결혼함.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표 1>과 같이 계속 증가 추세임.
- 이와 같은 통계를 볼 때 비록 결혼연령은 늦어지지만 기대여명의 증가로 결혼 후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60 년 이상을 결혼생활을 해야 하며, 자녀들의 출가 이후에도 40 년 이상을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길어진 혼인기간 동안 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평균수명의 증가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변화로 앞의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2035년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부부가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70 대 부부가구는 2010 년 54 만 9 천 가구(20.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5년에는 166 만 8 천 가구(33.0%)로 연평균 4 만 5 천 가구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전체 부부가구 변화의 46.9 %로 노년기의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표 1】 기대여명(life Expectancies)**, 1970-2010, 남녀전체

연 령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0	61.93	65.69	71.28	73.53	76.02	78.63	80.79
1	63.60	66.73	71.18	73.14	75.47	78.02	80.06
5	60.45	63.38	67.47	69.34	71.61	74.12	76.12
10	56.16	58.78	62.67	64.48	66.70	69.18	71.16
15	51.61	54.05	57.81	59.58	61.76	64.23	66.20
20	47.25	49.47	53.05	54.81	56.90	59.33	61.30
25	43.11	44.94	48.33	50.05	52.07	54.47	56.43
30	38.81	40.41	43.65	45.31	47.25	49.62	51.60
35	34.48	35.90	39.01	40.61	42.47	44.80	46.78
40	30.12	31.53	34.48	36.00	37.78	40.04	42.00
45	26.00	27.32	30.08	31.53	33.21	35.38	37.31
50	22.12	23.33	25.93	27.19	28.79	30.86	32.73
55	18.57	19.57	21.93	23.05	24.52	26.47	28.27
60	15.36	16.06	18.07	19.12	20.43	22.21	23.92
65	12.42	12.89	14.48	15.42	16.60	18.15	19.74
70	9.75	10.06	11.24	12.04	13.05	14.39	15.78
75	7.17	7.53	8.45	9.10	9.96	11.00	12.20
80	5.06	5.33	5.99	6.60	7.44	8.14	9.12
85	.	.	.	4.39	5.54	5.94	6.64
90	4.13	4.36	4.79
95	2.89	3.30	3.49
100+	2.64	2.60

*통계청(2011.12.2). 2010 생명표_통계표 보도자료. 각 년도 발췌함

**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생존년수

- 그러나 2011 년 혼인지속기간별 이혼율을 보면 【표 2】 와 같이 4 년 이하가 26.9%로 가장 높고 20 년 이상이 24.8%이지만, 20 년 이상의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표 2】 혼인지속기간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단위 : 천건, %)

	2001	구성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구성비
계*	134.6	(100.0)	144.9	166.6	138.9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00.0)
4 년 이하	38.0	(28.2)	39.0	40.9	35.0	33.1	33.0	33.7	33.1	33.7	31.5	30.7	(26.9)
5 - 9 년	31.0	(23.0)	33.7	38.5	31.8	28.5	27.3	25.5	21.7	23.6	22.0	21.7	(19.0)
10 - 14 년	25.6	(19.0)	28.2	32.7	26.3	23.6	22.4	21.7	18.3	20.0	18.6	17.4	(15.2)
15 - 19 년	19.9	(14.8)	21.4	24.8	20.5	18.9	18.0	18.3	16.5	18.4	16.9	16.2	(14.2)
20 년 이상	20.0	(14.8)	22.7	29.7	25.4	23.9	23.8	25.0	26.9	28.3	27.8	28.3	(24.8)
평균혼인지속기간	11.1	-	11.3	11.9	12.0	12.0	12.1	12.3	12.8	12.9	13.0	13.2	-

* 통계청(2012). 2011 혼인 이혼통계.

II. 미래가족의 변화와 가족생활교육

○ 미래가족의 모습

- 농경사회, 산업화사회, 정보화 사회로의 경제체제의 변화로 결혼한 여성의 취업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다양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그 결과 남녀의 성역할의 변화, 가정경제의 양극화 현상도 예상됨
 - DINK(Double Income No Kids), 기러기가족(Transnational family), THINKER(Two Healthy Income No Kids Early Retire), DEWK(Double employed with Kids), DINS(Dual Income No Sex)족 등의 다양한 맞벌이가족이 증가하고, 가족원들의 요구도 다양해 질것임.
- 의학기술의 발달로 길어진 생애과정에서 질병이나 노화 정도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증가하며, 출산기술의 발달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고 아버지권리와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할 것임.
 - 이러한 관계에서는 단순히 의무로 유지되는 가족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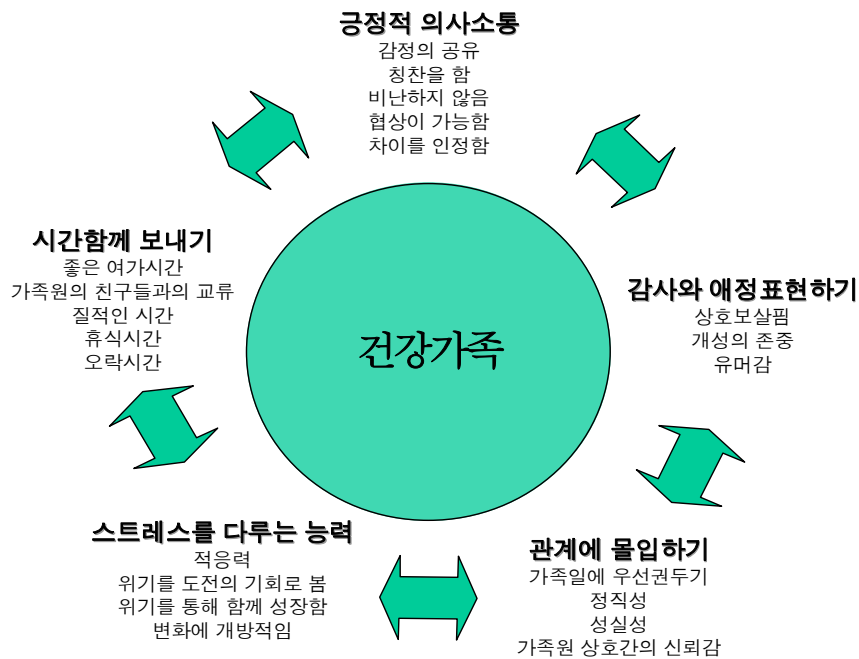
○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 가족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생활 공동체 이며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원이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가야 하는 경제적 정서적 공동체임
 - 혼인기간이 4 년 이하와 20 년 이상 부부들의 높은 이혼율을 볼 때 결혼전 준비와 함께 결혼기간에도 미래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가족은 점차 다양해지고 가족원들의 서로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지만 건강한 가족을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없음

- “끝까지 살아남은 생물은 강한 것도, 영리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변화에 적응한 것이다”라는 찰스 다윈(종의 기원)의 말처럼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가족의 노력이 필요함
-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 건강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부부관계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건강가족이란 무엇인가?

- 아프지는 않지만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복용하거나, 장래를 위해 연금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긴 생애과정 동안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건강해야 함
- 건강한 가족은 외도나 사업실패, 혹은 자녀들의 학업문제나 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할 때 뚝뚝 뭉쳐 위기를 잘 대처하는 가족이며, 가족원 서로가 배려하고 지지하는 가족임
- 건강가족은 【그림 2】와 같이 가족원들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간에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가족이며, 일과 함께 가족의 일에도 우선권을 두는 마음을 갖는 가족임



【그림 2】 건강가족의 특징

- 전국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는 다양한 가족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고령화 사회에서는 결혼후, 자녀출산후, 은퇴후가 아니라 결혼전, 자녀출산전, 은퇴전에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중년기 부부교육에 참여하는 지혜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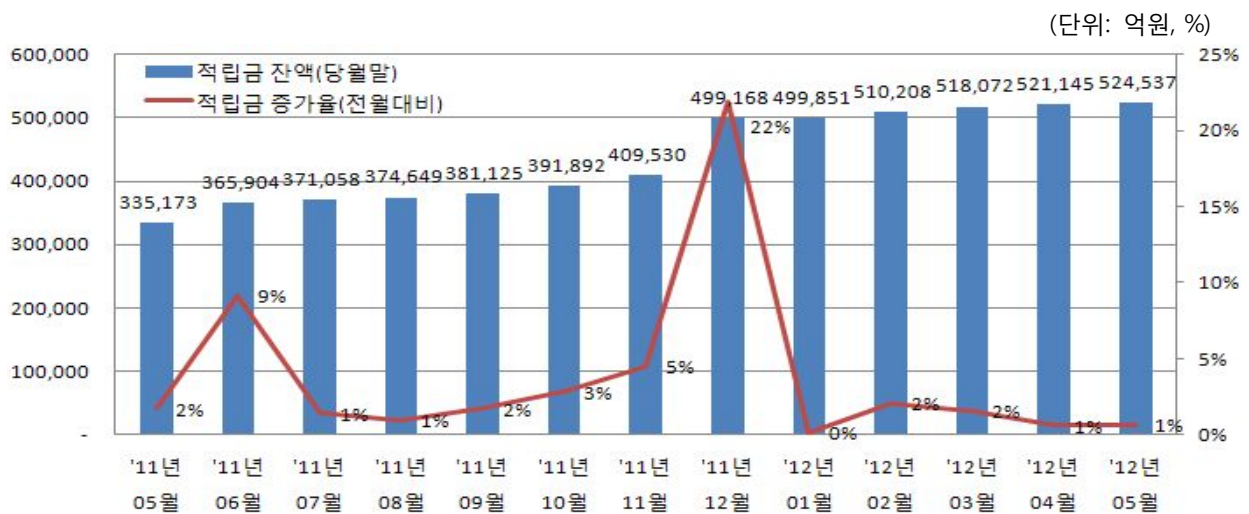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정현숙 교수(02-2287-5215, hschung@smu.ac.kr)

□ 퇴직연금통계 (2012년 5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5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2 조 4,537 억원으로 전월말 (52 조 1,145 억원) 대비 0.7% (3,392 억원) 증가
- 퇴직연금 정기납입분 및 퇴직급여 지급액은 분기 및 연말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평월의 증가세는 낮은 편
- 퇴직금 추계액(133.6 조 추정)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39.3%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61,616 개소로 전월말(157,268 개소) 대비 2.8% 증가
- 총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0.7%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95,882	41,969	17,346	4,687	733	999	161,616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	7.5	25.1	34.7	45.5	53.8	89.2	10.7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희로애락을 겉으로 나타내지 마라²

<한비자>에 이르기를, “군주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신하들이 본바탕을 드러낸다. 신하들이 본바탕을 드러내면 위대한 군주는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한마디로 군주는 자신의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주가 속내를 드러내면 저마다 군주의 기호에 맞추려 속내를 숨긴다. 군주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는 예스맨으로 가득차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신하는 하나도 없게 된다.

군주가 호오를 드러냈을 때 주위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례는 많다. 예전에 월나라 왕 구천이 용맹함을 좋아하자 백성들 가운데에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고 초나라 영왕이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자 도성 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제나라 환공이 남자를 질투하고 여색을 매우 밝히자 수조라는 자는 스스로 거세해 후궁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됐고, 또 환공이 진기한 맛을 즐겨 찾자 역아는 자기의 말자식을 찌서 진상했다. 연나라 왕 자괘(子噲)가 어진 사람을 좋아하자 자지(子之)는 나라를 물려주어도 받지 않을 것처럼 거짓을 부렸다.

이 모든 불행은 군주가 신하들을 경계하지 않고 자신의 속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하들은 오직 군주의 마음에 영합하기 위해 처신하게 되는 것이다. 군주가 싫어하는 기색만 보여도 신하들은 무조건 감추게 되고 군주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신하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르는 척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명한 군주라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신하들로 하여금 아부의 싹을 잘라 버린다.

**나는 대중을 구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사람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 테레사(1910~1997) : 수녀. 1979년 노벨평화상 수상

² 김원중 교수의 <한비자의 관계술>(2012, 서울: 위즈덤하우스) 49-50쪽에서 발췌.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